

다산포럼



송 혁 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너는 평생 부지런히 상전을 받들었으니 내가 실로 너의 덕을 많이 보았다. 내 이를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이 불초하기에 내가 일찍이 혼계하였건만, 아니나 다를까 살 곳을 잃고 떠나서는 아비 무덤에 풀이 우거져도 별초할 생각조차 않는구나. 살아서는 일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귀신이 되어서도 굶주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내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가엾고 애달픈 마음에 떡과 과일을 약간 준비하여 너의 외손을 시켜서 가지고 가서 술을 부어 제를 올리고 급히 쓴 뜻 마디 말을 무덤 곁에서 고하게 하노라. 너는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감통하는 귀신의 이치로 지극한 정성을 반드시 느낄 수 있으리라. 네가 흡향하기를 바란다.”

기 고

노비를 위한 제문을 읽으며

성호(星湖) 이익(李瀾)이 여러 해 전에 죽은 노비를 위해 지은 ‘제노문’(祭奴文)의 일부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이익은 노비를 박대하면서 충성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주인은 노비에게 추위와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 주지도 못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며, 성이 나서 벌을 내리지만 할 뿐 잘한다고 상을 내리는 법은 없다. 주인을 위해 온갖 고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핍하면 매 맞고 욕먹기 일쑤이니 노비에게 주인은 원수와 다름이 없는데도, 주인이 죽으면 노비는 머리를 풀고 애도해야 한다.

반면 노비가 죽으면 주인은 슬퍼하기는커녕 제사상에 술 한 잔 부어 주는 일도 없고 개탄하였다. 제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익은 이렇게 덧붙인다. “이 일을 보면 다들 나를 비웃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情)이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평생 자신을 섬긴 노비를 위해 제사상 차려 주고 제문을 지어 주는 일이 어떻게 비웃음을 살 일인지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노비를 사적 재산으로 여겼던 시대에는 이익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이

례적인 일이었다. 귀천의 구분이 당연할 뿐 아니라 무너지면 안 되는 질서라고 생각한 양반들에게 있어서 노비제도의 존속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남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연민의 감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그것대로 소중하다.

근래 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근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분들이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과 분노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택배회사의 선의를 기대하거나 정부에 정책을 촉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고용 형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 일로부터 배출 이전의 분류 작업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하는 일 등 간단치 않은 선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크고, 개선에 이르는 동안 또 다른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가 택배 노동자뿐일까? 우리가 더 저렴한 가격과 더 편리한 서비스를 당연한 선택 기준으로 여기는 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때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조선 양반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매매하는 일이 성행할 때,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인종 및 문명의 우월감에 기반을 둔 합리화 논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랫동안 견지되었다.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봉하고 있는 무언가도, 바로 이와 같을지 모른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 수단과 과정이 어떠한도 무방하다는 관념 또한 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당연한 가치로 추구되는 풍요와 행복 역시,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질 때 소중한 다른 것이 간과될 수 있다. 공감과 분노의 여론만으로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 추진의 원동력은 될 수 있다. 당연한 인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의 움직임에 충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찰과 발언이다.

社 說

출범 10개월 5·18조사위 그동안 뭐 했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다. 활동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한데 미완의 5·18 과제 해결이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 너무도 미흡하다. 게다가 위원들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니 걱정이다.

5·18조사위는 어제 광주에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홉 명의 조사위원들은 3개 조사과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진행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5·18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조사위원들이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 내용을 정취하는 것 자체부터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듯하다. 일부 위원은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2020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사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들 간 소통 부족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대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흡한 활동 실

적이다. 조사위는 당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및 유튜브 채널, 5·18 당시 지역 계엄군·보안사, 중앙정보부 및 전남경찰 관계자, 전남 일대 무기고 피습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암매장과 헬기 사격 및 발포 및 선풍력이나 행방 불명 등에 대한 224건의 제보를 받았고, 국방부·육군 등으로부터 72건의 군사 자료와 진압 작전에 참가한 부대별 연명부를 확보한 점은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5·18조사위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에야 닦을 올릴 수 있었다. 출범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의 조사 속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다 해도 너무 더디다. 조사위원들은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로, 40년이 지나도록 의혹과 채움에 남아 있는 집단 발포 책임자 및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진실 규명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것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 상향 절실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 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 정책 보험이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 보상 기준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됐다.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2017년에 폐지된 것도 아쉬운 일이다.

이밖에 같은 벼를 키우는 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시·군별로 크게 차이

가 나는 것도 문제다. 벼 보험료율을 예로 들면 진도군의 경우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그 차이가 무려 8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같은 작물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보험료를 산정 기준은 하루바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해 보상 기준 상향 조정과 무사고 보험료 환급제 재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씨앗을 심으면 싹이 터 나온다. 땅 밑에서 지상으로 처음 나오는 앞은 땅잎이다. 땅잎을 보면 곡물이나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인지 여부를 점칠 수 있다. 단단하거나 연둣빛 색깔이 선명할수록 좋은데, ‘뿔성부른 나무 뿔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나 징조를 이르는 ‘싹수’가 들어간 표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새싹의 색이 선명하지 않고 부실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오히려 나오는 새싹의 어린 모가지를 ‘싹자지’라고 부른다. 싹자지가 부실하면 잘 자랄 가능성이 낮다. 커서도 알곡 없는 쪽정이가 된다. 싹수가 노랗다면 싹자지가 부실하게 되고 바른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싹자지가 없다’라는 말은 이를 반영한다.

지난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여야 정치권에 대해 걸었던 ‘혹시나’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철

저한 국감을 통한 민생의 고단한 현실 진단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는 실종되고 수준 낮은 ‘막장 정쟁’만 난무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택트 감사, 핵심 증인들이 빠진 맹랑 감사, 초선 의원들의 준비 부족, 여야의 리더십 실종 등이 맞물려 민심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지역 초·재선 국회의원들도 의욕을 갖고 이번 국감에 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여당 체질에 길들여진 듯했다. 시대에 대한 절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총선, 호남 민심은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통해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아직 정치적 싹수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이 보여 준 정치적 비전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호남 정치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그들이 시대에 대한 각성과 연대를 통해 튼실한 희망의 싹을 틔워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김 삼 호
광주 광산구청장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예전엔 마을 구성원이 함께 아이를 키워 냈다는 의미다. 수평적 공간인 마을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아이들은 부모뿐 아니라 동네 주민에게도 가르침과 보호를 받았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며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빌었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던 시대였다.

한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우리 것은 촌스러운 것, 낡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전통적인 가치와 마을의 일상 공동체는 무너졌다. 대다수 국민이 수직 공간인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

웃과의 소통은 단절되었다. 마을 공동체가 다시 등장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부터다. 일본 ‘마치즈쿠리’의 영향을 받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며 시민운동으로 확장된 것이다.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가 다시 시작된 것도 이쯤이다.

코로나 시대,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K-방역은 20년 넘는 지방 자치와 공동체 운동,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민의 시민의식과 같은 저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지방 정부는 앞장서서 병실 내어주기,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개설, 착한 임대운동 등을 이끌었고, 지역 공동체는 마스크 만들기, 취약계층 도시락 보내기, 생활 방역단 운영, 선결제 운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광산구는 송정역과 광주공항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기 때문에 위협 요소가 더 많은 셈이다. 광주의 첫 확진자가 광산구에서 나왔지만, ‘먼저 맞은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관군경이 함께 노력해서인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 주민 자치가 활발했던 만큼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성실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는 공동체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복 시행되면서 공동체의 핵심인 만남 자체가 불가능해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몇 년씩 장기화된다면 애써 쌓아 올린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활성화되기까지 투자된 시간과 수많은 시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다시 재건하기까지 몇 년을 다시 쏟아 부어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올 초 시작된 코로나는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개인별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할 것은 해 나가야 우리 자치역량이 유지된다. 과거에 30명이 모였다면 10명씩 세 번 모이는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치의 힘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민관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광산구도 올해 9개 동 주민 자치 총회를 온택트로 진행했다. 주민이 아니어서, PD, 리포터가 되어 총회를 진행하고, 마을 현안 48개 의제를 온·오프라인으로 투표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가능성도 보았고,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지방 분권 시대에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만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도 K-방역이 성과를 거둔 이유를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고통 분담 정신,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결속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아무리 효율적인 정부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시민 사회가 함께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마다 특유의 근성과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가 자치 역량을 더 키우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전략을 모색해 지방 정부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청춘특독

코로나 우울감에 잠식되지 않기를



최 윤 진
조대신문 편집국장(신문방송학과 2년)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은 명확하다. 대학은 물론 각 기업은 조직에 어울리는 인재의 모습을 정하고 그 인재들을 매년 찾고 있다. 지원자의 책임감과 성실성, 전문성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자기 소개서를 통해 조직은 지원자를 고르고, 선택받은 몇 명만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대학에 다니며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내게도 사회가 바라는 것이 있다. 고학점은 물론, 고득점의 공인 영어 점수, 해외 어학연수, 학회·동아리 활동에 인턴십 경험까지… 높은 곳에서 날아 보려 하루하루 발버둥치지만,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인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피로와 우울감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억울함이 분노가 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과 학업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하는 벅찬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환경 변화에 민감했던 나 역시 이번 신문을 준비하는 2주 동안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쉽게 집중하지 못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불안정한 미래가 조금이나마 형태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한 일들을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됐다.

기사를 쓰는 것도 그랬다. 쓰면 쓸수록 ‘결과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기사가 없었다. empty라고 여기고 하는 일에 자신

감이 없어지니 내가 쓴 기사를 읽고 보는 일이 힘들었다. 내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쓰는 기사인 만큼 더 애정을 쏟고 꼼꼼히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기사 자체에서도, 신문에서도 실수가 늘어났다. 마감일이 다가오는데도 나는 끝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울에 잠식되기를 반복했다. 그렇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겨내야 했다.

코로나 우울감에 더 취약한 세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겪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수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퍼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현 상황 가장 불쌍한 XX년생’ 같은 글들이 한참 올라왔었다. 그 당시 맞장구를 치며 본 글들을 달리 생각해 보니 꼭 맞는 말만은 아니었다. 모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세대만이 더 힘들고 안쓰러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학업을 계속하는 대신 직업 학교에 다니기로 한 청소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창업에 뛰어들어 청년, 몇 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한 우리 옛 세대 등. 코로나19라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새로이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불안과 무기력함에 잠식되지 않고 활활 날아가기를,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감과 무기력증, 코로나 블루에서 파생된 불안감이 분노로 이어지는 ‘코로나 레드’, 취약 계층이 겪는 코로나 블루 수준을 넘어서는 더 답답한 ‘코로나 블랙’까지. 계속되는 실패에 지친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해온 노력들을 믿지 않고 금방 포기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울감에 잠식될 것이다.

나 자신도 불안하지만, 이걸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와 적절한 운이 따랐으면 좋겠다. 우울에 의존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계속 달려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안온함을 느끼는 우리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